

작성일 : 2009년 11월 11일 (수) 새벽기도 중

작성자 : 문희진 (나이 12세. 초등학교 5학년)

소 속 : 충남 아산화목 교회 (은하수)

(은하수 고학년 5~6학년에게 하신 말씀)

사랑하는 나의 은하수야 나 여호와 예수다. 10대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모~두가 죄! 사탄에게서 벗어나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 특히 은하수를 너무 원한다. 나에게 올 수 있겠지? 더욱 부활하자! 너희 고학년이 빨리 나와 만나서 애들을 가르쳐야지~ 내가 함께하노라. 하자! 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은하수야~사랑한다. 나랑 제발 통하자. 가늘고 귀여운 너희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모든 죄를 나한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 부디 나와 만나자. 나의 심정 알아지느냐? 은하수 그 중에서도 너희(5~6학년)가 먼저 모범을 보여라! 똑같이 싸우고 편가르는 거 나 싫다. 나와 함께하자. 부디 제발 너희 절대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나 안간힘을 쓴다. 부디 나의 심정 알아다오. 사랑한다 사랑해.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빨리 거듭나야지. 나의 마음을 가져야지. 나와 통해야지. 할일이 너무 많지? 하지만 할 수 있다! 이것 외에도 회개, 사랑 등등이 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 과제를 냈다. 내가 말한 것 다하면 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나의 심정 짧게 전해주었다. 이 말씀을 받아 적는 아이도 은하수 아니냐. 나는

이런 것이 좋다. 우리 은하수 각 개인에게 다 가서 너희와
통하고 싶다. 함께하자 영원히.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 예수가-

(이어서 예수님께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 짧게 아버지께 부탁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 자비가 넘치는 나의 아버지

은하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은하수입니다.

부디 깨어 있진 않아도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은하수 저 사탄 지옥으로 보내기 싫나이다.

저 어린 것들이 벌써 지옥으로 가다니요. 아버지여 한번만
더 나의 부탁 간구 들어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온 맘 다해 아버지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저
의 부탁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은하수 이끌어주시고 아버지의 따뜻한 인자
한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뜨거운 성령 받아 저와 통하게 하
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제발. 주여! 아버지 한 번
만 더 들어 주시옵소서.

계속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하기가 아버지께 죄송하나이다.

하지만 저 어린것들 지옥으로 보내면 제 마음에 꺼림도 있고 가슴이 찢깁니다. 어른도 참지 못하는 고통을 저 어린것이 당하면 저 또한 죽나이다. 가슴 찢기나이다.

제가 한 번 더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나요?

한 번 더 매달려야 저 어린 것 용서해 주실 건가요?

저와 제~발 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아버지 부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만군의 왕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아버지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